

# \*\*\*현대건축의 절충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Eclectic Express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배준현 / Bae, Jun-Hyun

전명현 / Chun, Myung-Hyun

### Abstract

Eclecticism, had begun at 1820s' and ended at the beginning of the 20c, quoted historic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This trend is considered with architectural quotation and the meaning has the same text of the eclectic trend of Postmodernism. This study focuses on eclectic characteristics and have purposes of theoretical approaching to and formal analyzing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truct contemporary built environment for diversity of form. Because expression of Architectural form by eclecticism is a method without experience, designers can take architectural language by indirect experience of another world's architectural styles. Architectural form of Eclecticism has to be expressed by designer's own analysis, when take a normal identity by creative principal of form-composition, it will be a methodology of form composition and a proper necessity.

키워드 : 절충주의, 인용, 요소 환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 1. 서론

현대는 전체의 상보다는 단편화한 부분들의 조합이 우선하여 전체는 그 결과에 불과한 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런 단편들은 동질적으로 혹은 이질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상을 만들게 되는데, 전체는 부분들간의 결합으로 자연발생적인 개념으로 전락해 버린다. 기존의 전체는 분해되어 단편으로 현존하게 되어, 기억되고 표현되어진다. 또한, 현대는 대중매체와 대중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하나의 전체, 즉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에서의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전체로 존재하게 되어, 누구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한다.

과거는 어떤 식으로든 경험되어 진다. 경험은 개인적으로 유발되고, 기억되어지며,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되고 기억되어 표현되는 과정은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 따른 수많은 경험들은 단편화되어 개인의 기억 속에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건축의 창조는 과거의 직접적인 바탕 하에서 행해지는 예술로 볼 수 있다. 창조하는 행위, 특히 건축에서의 창조란 경험되고 기억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재구성되는 행위로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의 창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독창적인 재구성에 의해 하나의 양식이 생겨나고 개인의 독특한 건축철학 및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창적인 재구성의 의미가 절충의 논리에 의한 방법론적 의미인 것이다. 절충에 의해 표현된 건축은 다시 다른 경험을 유발시켜 또 다른 건축의 창조적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다양한 과거는 경험하는 각 개인마다 다른 상태로 경험되고, 기억되어, 표현되는데, 거기에 따른 표현 또한 다양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다양성을 내포하는 절충의 논리는 현대예술 특히 현대 건축의 한 부류를 형성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지에 깔려있는 배경을 분석하는 데도 유력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1820년 경부터 20세기 초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소멸된 절충주의는 그 형태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역사적 혹은 동시대적 건축물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적 인용의 행태로 파악가능하며 그 의미는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건축의 경향 중 절충적 특성을 파악하여 현대 건축의 이론적 접근과 형태적 분석을 함으로써, 형태구성의 다양한

정회원, 동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1997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추구하는 현대의 건축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말, 근대건축의 어명기에 풍미했던 양식들, 즉 낭만주의, 신고전주의등 더불어 발생한 절충주의의 건축적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후 근대, 현대건축을 통해 나타난 절충적 표현의 경향을 분석한다. 또한, 19세기의 절충주의의 경향과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절충적 표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현대건축의 다양한 형태적 표현의 이론적 배경을 성립시키는 방법론을 취한다.

## 2. 절충주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1 절충주의의 정의 및 의의

일반적으로, 절충주의는 상이한 견해, 이론, 사상 등을 끌어모아 기계적·무원칙적으로 짜 맞추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견해, 이론, 사상체계를 말한다.<sup>1)</sup> 이는 이미 정립된 경향으로서,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기존의 형태로부터 새로운 형태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유사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추상과 재현, 역사와 모더니티, 수공예와 하이 테크놀러지,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통합에 이르려는 경향으로 파악된다.

### 2.2 절충주의의 시대적 고찰

절충주의가 대두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으로 기계공업시대가 전개되어 대량생산방식이 생겨나고 동시에 인문과학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양식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비판을 갖게 되어 한정된 과거양식의 재현에 대한 무의미함을 깨닫고 새롭게 과거양식 전체를 돌보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 절충주의양식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각 작가가 자기 주관에 의하여 각종 양식의 장점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sup>2)</sup> 그리하여 절충주의 건축은 르네상스, 고딕, 비잔틴, 동양 등 여러 양식을 자유로이 수용하게 되었다. 선택적 기능을 지닌 모방의 원리에서 프랑스의 건축이론가들은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 ① 집단적인 관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용성의 추구,
- ② 건물구성이나 대지계획, 입면 등, 종합적인 재료와 구조체계의 실제적인 이용
- ③ 장식 또는 꾸밈

19세기 전반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sup>3)</sup>은 건물을 구성하는 독특한 유형을 결정하는 건축체계에 있어서 종래의 관습적인 응용을 막긴 적 공간에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마침내 1880년대에 들어서서는

독창적인 절충주의양식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18세기이래 과거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무수한 패턴 자료집(pattern book)이 출판되어 여러 국가의 여러 양식 건물들이 자유롭게 인용되었다. 즉, 절충주의 건축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각 건축가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각종 양식의 장점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절충, 종합하였다.<sup>4)</sup> 이 절충주의 건축은 대략 1820년경부터 20세기초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소멸되었다. 절충주의는 그 형태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역사적 혹은 동시대적 건축물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적 인용의 행태로 파악가능하며 그 의미는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적 경향<sup>5)</sup>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 2.3 절충적 형태구성원리

절충은 대상을 인용한다는 의미로서 인용의 사전적 의미는 이끌어서 씌, 또는 다른 문장과 사례 또는 옛사람의 말을 이끌어 고충하는 것<sup>6)</sup>이다. 매우 일반적으로 인용이란 말은 다른 작품을 구조적 원칙의 지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다룰 때 적용된다.<sup>7)</sup> 논문구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글을 옮겨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인용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의 일부를 논문의 본문 또는 주에 삽입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인용방식은 다음과 같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다. 이 두 인용방식에는 언제나 연구자의 주장이 아닌 타인의 주장을 옮겨왔다는 명백한 표시가 필요하다.

- ① 직접 인용 : 타인의 주장을 문장 그대로 옮겨 놓는 방식
- ② 간접 인용 : 타인의 문장이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의 핵심을 연구자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

건축에서의 인용에 의한 형태구성은 앞서 살펴 본 19세기 절충주의양식의 건축형태 구성방법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구성 방법론으로도 재기되었다. 다시 말해 절충주의 시대의 건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적 경향은 인용이라는 건축형태 구성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구성에서의 인용에 의한 방법론은 시대적·양식적 아이덴티티가 결여된 단편화된 세계, 안정된 이념이나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산물로서 텍스트는 주관에 의해 특수화되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는 그 자체로 상대화되고, 그 텍스트들은 여러 각도로 확산된다. 그 결과 다양성과 모순이 주체가 되는 부정합의 양상을 인용의 수법이 지배하게 된다.<sup>8)</sup>

건축형태의 구성과정에서 인용의 의미와 방법론은 건축적 창조와

1) 철학사전, 중원문화사, 1987, p.600

2) 유상철, 서양건축사, 동명사, 1988, p.262

3) 절충주의에 대한 19세기적 개념은 183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 프랑스 철학자인 빅토르 쿠쟁(Victor Cousin)은 절충주의를 다양한 이질적 체계로부터 선택된 관점들로 구성된 사고의 복합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Peter Collins, 1991, pp.119-130

4) 이해성, 기문당, 근대건축의 흐름, 1997, pp.105-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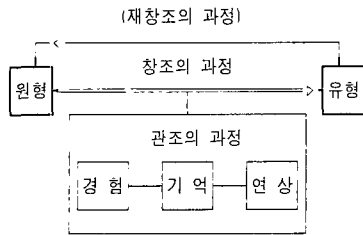
5) Jencks의 모더니즘과 레이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성향 분류에서 제시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이념 중, 스타일의 이중코드, 대중적이고 다원론적, 기호론적 형태, 전통과 선택, 예술가/건축주, 엘리트 겸 참여자, 단편적, 대표자/행동주의자로서의 건축가 등은 바로 절충적 경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6) 양주동, 현대국어 사전, 일송당, 1988, p.504

7)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패러디 이론, 김상구 역, 문예출판사, 1993, p.31

8) 김광현, 인용의 논리, Plus 8708, pp.78-79

과정 및 관조의 과정을 표현한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1> Jean Jacques Lequeu, Rendezvous de Bellevue, 18세기

이 도식에서, 원형이 건축이 아닌 자연적, 인공적 대상 혹은 인체를 그 대상으로 할 때, 관조의 일차적 과정이 유추적 과정이 되고, 원형이 기존의 건축을 대상으로 할 때 인용의 과정이 되어 연상의 단계는 의미가 약해진다. 이 관조의 과정 혹은 인용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유형이 발생될 때는 이 관조의 과정이 상징의 과정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관조의 과정, 즉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인용의 바탕을 만들고 연상을 통해 즉, 인용의 과정을 통해 유형의 작품을 창조하게 된다. 여기서 창조된 유형이 또다시 원형이 되어 관조와 인용의 과정을 통해 즉, 재창조를 통해 또 다른 유형이 창조되는 것이다.

## 2.4 인용에 의한 절충적 형태구성

2.3에서 살펴 본 인용은 1차적인 건축형태의 구성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절충이라는 행태를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에 있어서 절충적 표현은 인용을 수단으로 하는 플라주 혹은 병치의 수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인용된 건축적 원형 혹은 유형은 앞서 분류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인용을 거쳐 형태와 공간구성에 적용될 수 있다. 인용에 의한 표현은 단편적 표현과 전체적 표현 즉, 플라주나 병치에 의해 표현되는데, 인용의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절충은 바로 후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인용에 의한 절충적 표현으로 19세기 절충주의 시기 이전 18세기 장 자크 르퀴에(Jean Jacques Lequeu)의 베르부의 집회소(Rendezvous de Bellevue) <그림 1>를 선례로 들 수 있다. 르네상스의 탑 위에 얹혀진 그리스 신전의 정면, 중앙의 지붕 옆에 돌출된 굴뚝, 팔라디오 풍의 개구부와 파사드, 아래쪽의 고딕식 첨두아치 등이 불규칙하게 조합되면서 본래의 문맥과는 관계없이 대립, 복합되어 있는 이 건물은 기묘한 불안감 속에서 각 시대의 양식들을 등가물로 인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집회소(Rendezvous)는 무한한 인용의 연쇄작용 즉, 요소들의 만남속에서 우연히 선택된 순간적인 랩소디를 나타내고 있다.<sup>9)</sup> 여러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조의 형태적 특성을 대변하는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인용해서 플라주시킨 절충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보임이라는 건물의 용도를 표현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9) 김광현, 앞의 책, p.51

## 3. 절충적 표현의 방법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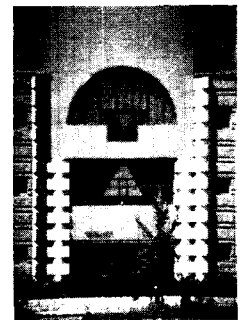
### 3.1 절충적 표현을 위한 인용의 대상

절충적 표현을 위한 인용의 대상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하다. 우선 그 대상을 건축/비건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건축적 대상은 역사적 혹은 동시대의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건축적 대상은 통시적이건 공시적인건간에 구성 요소 즉, 기둥, 캐노피, 개구부 등 단편적 요소를 인용하거나, 파사드, 매스 등 전체 구성을 인용대상으로 한다.

찰스 무어의 이태리 광장 <그림 2>은 기둥들로 짝 찬 둥근 광장을 새 건물에서 잘라냈다. 건물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기둥들의 행렬은 이태리의 지도처럼 장화 모양으로 된 광장의 아케이드에 나타난 섬 모양과 원형 광장의 중심에 있는 시실리섬으로써 이태리의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태리의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도릭,



<그림 2> Charles Moore, Piazza d'Italia, New Orleans, 1979



<그림 3> Arata Isozaki, Tsukuba Center, Ibaragi, 1983

터스칸, 이오닉, 코린트, 콤포질 오더 모두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소자키의 츠크바 센터 빌딩 <그림 3>에서 인용의 원천은, 광장은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와 찰스 무어의 이탈리아 광장, 기둥의 르두의 쇼의 제염공장, 3부로 구성된 외벽은 유럽의 도시경관, 페디멘트는 서구의 역사주의 건축의 답습 등을 들 수 있다.

#### (1) 통시적 대상 - 역사적 건축물

절충주의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인용을 그 방법으로 취한다. 역사적 건축의 양식적 특성 혹은 그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인용을 하는 경우이다. 통시적 인용은 양식의 전개과정에서 바로 이전의 양식적 특성보다는 다양한 시

기의 여러 양식적 특성을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인용한다.

(2) 공시적 대상 - 동시대의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동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인용이 있는데 이는 두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즉, 동시대의 건축적 양식을 구성할 경우와 특정 건축물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성을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대의 양식을 구성하는 경우는 포괄적인 인용의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절충적 표현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충적 표현은 동시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판과 재구성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3) 비건축적 대상

절충적 표현에 있어서 그 인용의 대상은 비건축적 요소도 도입이 된다. 특히, 현대건축에서 적용되는 대상은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구성원리에 의해 요소화되어 나타난다. 한스 홀라인은 "모든 것이 건축이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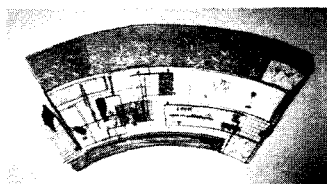
사건 형태주에서 볼 수 있는 플스토포이스 그림이나 플리그는 운유, 즉, 그림이나 플리그 같은 건물이 아니고 맨하탄이나 평원이라고 말하는 배경중에 놓이게 됨으로써 건축이 되는 것이다.

3.2 인용한 대상의 절충적 표현

(1) 직설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

역사적 건축물은 인용을 통해 그 표현이 직설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마호친은 헬레니즘 문화에 관한 글에서 인용의 사용에 있어 다양한 정도의 '비슷하게 하기'와 '다르게 하기'가 있다고 말한다. 즉, '은폐된 것' 그리고 '반쯤 은폐시킨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페리디를 은유적 의미의 인용으로 보고 "그 장르 자체, 문체, 언어는 모두 우수왕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인용부호 안에 넣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0)</sup> 직설적 표현은 원래의 텍스트에서 가지는 의미를 상실시키 새로운 텍스트에 삽입되어 아이러니한 표현이 된다. 은유적 표현은 건축적 요소를 작가의 주관에 따라 형태적 변형을 가하여 자연스러운 구성방식을 취하게 된다.

OMA는 최근에 건축의 요소를 분해하는 방법을 써서 더욱 작품에 로망티시즘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의 소멸과 사람 신체와의 관계는 바로셀로나 파빌리언을 웨이트트레이닝 룸 <그림 4>으로 바꾸어 버린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모더니즘과는 자연회귀적인 즉, 뉴트로 되어버린 건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4> OMA, Weight Training Room, 1986

10) L. Hutcheon, A Theory of Parody, 문예출판사, 김장근역, 1993, p.83

(2) 단편적 표현과 집적적 표현

인용된 대상은 부분적으로 즉, 단편적으로 표현될 경우와 부분의 결합 즉, 병치 혹은 플라주로 표현된다. 인용된 대상은 전체구성보다는 단편화된 부분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이다.

표현에 따른 분류	형태	직설적 표현	새생적 표현	역사주의적 형태구성 방법
		은유적 표현	새현적 표현	회화적 표현, 기하학적 단순화
	수법	단편	독립된 표현	아이러니한 표현효과
		집적(병치, 플라주)	집합적 표현	포스트모더니즘의 계열

3.3 절충적 표현의 의의

앞서 살펴 본 인용의 대상들은 1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전 역사를 동시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존 의미의 재현, 새로운 의미의 생성 그리고 강한 장식적 의도를 표현하게 되어 현대건축의 다양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1) 역사에 대한 비역사화

절충적 표현의 1차적 의의는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을 인용하여 표현하는데, 기억을 상대화하고 역사적 시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역사를 비역사화하는 방법론이다. 건축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이는 진화론적 전개방식이라는 달리 바로 전 단계의 건축양식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의 다양한 시기의 건축양식을 인용한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고전건축에서부터 동시대의 모든 건축적 양식을 인용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병치나 플라주의 방법으로 재구성하는데 모든 시기의 건축적 양식은 하나의 박물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인식에 근거를 둔 형식으로 정확한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형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닌다.

(2) 기존의 문맥에 대한 초맥락화

기존의 문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문맥에 삽입되어 기존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재화라는 다른 원리로서 본래의 텍스트가 갖는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을 애매하게 만들어 역사와 양식, 기술이나 사회라는 이제까지의 건축적 문맥을 해체하여 근대건축의 문맥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결과 선행하는 양식이나 역사를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을 취하게 된다. 포르토게시(Paolo Portoghesi)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역사적 기억과 새로운 것 사이의 상호작용에 근거를 둔다고 본다. 건물이 과거와 현재의 환경에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하려는 초맥락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터 아이젠만의 왓스니 센터 <그림 5>는 19세기 무기창고를 인용하면서 비이문화, 초맥락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세 예술성에 반항한 21세기의 예술을 지향한 개념으로서 새로운 "비역동"의 재료로 지어짐으로서 과거 형상을 즉각 회상하게 하는 반면, 그 인공적 차

11) 건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본래, 하나의 양식은 바로 전 단계의 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적 구성을 취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축의 역사는 진화론적 전개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Peter Eisenman,  
Wexner Center, Ohio, 1989

### (3) 장식

절충적 표현에서 의미 부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기존의 의미를 무시하고 장식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절충적 인용 자체에 대한 의미는 가지지만,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는 사라지고 시각적인 유희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장식적 의의는 현대건축의 유희적 경향과 일치하는 건축구성방법론으로 취급된다.

### 3.4 소결 - 요소환원주의적 경향

결과적으로, 절충적 표현은 전체보다 부분이 앞선다는 즉, 전체는 부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요소환원주의적 경향<sup>12)</sup>을 표현한다. 기존의 건축적 요소들을 시간과 장소,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목표 아래 인용하며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스케일의 조작으로 축소·과장되기도 하고, 기존의 재료를 무시하고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단편적으로 혹은 풀라주되어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 4. 현대건축의 절충적 표현경향

### 4.1 비논리적 표현

합리적이지만 특성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기술주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갈등의 표현이기도 한데, 구조적 역전과 재료의 왜곡된 표현 경향이 강하다.

#### (1) 스케일의 조작 - 과장

기존의 건축적 요소, 특히 구조체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비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로서, 상부의 하중을 받아주는 기능을 가지는 요소인 기둥이 천정에 매달리며, 주두만 있고 몸체가 없는 기둥, 지지

체인 아치가 수평재에 달려있는 현수아치, 고전에서는 기둥상부의 엔타블레취가 분절되고, 삼각형 박공체의 하부면이 생략되는 등 구조적 모순을 표현한다. 이는 근대적 공법으로 과거의 조적식 구조를 표현하게 되어 기존의 구조적 의미와 스케일은 사라지고 장식적 혹은 상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Ricardo Bofill,  
Partico de Abraxas,  
Mame la Valle, 1983



<그림 7> Hans Hollein, The  
Presence of the Past,  
Venice Biennale, 1980

리카르도 보필의 아브락사스의 집합주거 <그림 6>는 극장, 궁전, 개선문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 고전적 어휘의 형태가 인용되어진 시대적 심볼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는 벽기둥과 열주, 쇠시리장식과 코니스, 아치와 박공, 대칭과 축의 사용 등의 고전적 건축언어를 인용하는 가운데 단계별의 단절을 중요요소로 하고 있다.

한스 홀라인의 "반-외관" <그림 7>에서 그는 원형이 되는 기둥의 주체 주변에 "현실"에서 "환상"으로, "예술"에서 "자연"으로의 변화를 에워싸고 있다. 그 기둥은 제일 먼저 그 자체로써 표현되고, 다음은 잔혹하게 베어진 나무로, 다음 하나의 건축물로 아돌프 루스(Adolf Loos)의 1912년 시카고 트리뷴 현상 설계안의 모형으로, 다음엔 그 자체가 폐허화된 부정(不正)으로 표현되었다. 그 부정은 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둥을 파열시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있다. 최후에 그것은 자연과 문화의 양의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며, 무성한 수목의 형상을 하고 있다.

#### (2) 이질적 재료의 사용 - 왜곡

역사적 건축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대적 표현방법으로 스케일을 무시한 과장된 표현 이외에 기존의 석재와 같은 전통건축재료를 유리나 알루미늄 등으로 표현하여 재질감의 역전된 표현을 강조한다. 거친 석조의 질감을 매끈한 질감의 재료로 표현하거나, 두 가지 질감을 동시에 표현하기도 한다.

### 4.2 애드·혹적 표현

Jencks는 현대건축의 경향 중 애드·혹리즘(Ad·hocism)을 '즉흥성의 사례'라는 부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고정된 최종 형태보다는 생산과정에 관계하는 즉흥성에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양식은 역사적 범위에 규정되는 것 같은 통시적인 성격을 상

12) 요소환원주의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복잡한 현상을 해명할 때, 전체를 몇개의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여 그 구성요소의 성질을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스카와 미츠오, 동양적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 인간사, 서상문 역, 1990, p.31

실하여, 모든 것이 등가로 작용하는 공식적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단편적이고 정보화되어 버린 애드·혹한 집적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Kenneth Frampton은 이러한 경향을 '불협화음' 혹은 '저자의 소멸'로 표현하면서 '비물질화된' 역사주의의 단편은 현대주의적 단편과 자의식적으로 포용되고 무형식적으로 혼합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애드·혹적인 표현 경향은 단편의 집적적 표현인 병치나 새로운 전체의 구성에 부분적으로 삽입되는 꼴라주의 양상을 보인다.

(1) 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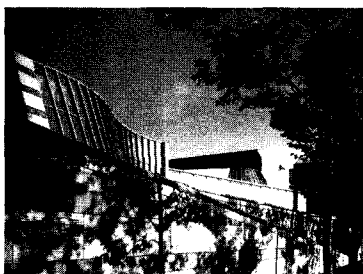
기존의 건축물 혹은 그 구성요소들을 집적시키는 표현방법으로 꼴라주의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용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단편적으로 집적시키는 행위로써, 각각의 객체로 오버제화 되어 독립된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의 전체적 의미 내에서 통합된다. 각각의 의미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나 전체구성의 틀 내에서 공유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수법은 유형학적인 형태구성방법론을 취하는 신헌리주의 계열에서 특징화되어 나타난다.

한스 홀라인의 오스트리아 여행사<그림 8>에서는 리차드 마이어의 난간, 야자나무 (영국의 건축가 John Nash의 대표작인 브라이언관에 있는 야자나무), 천정 (빈의 우편저급국 천정), 그리스 기둥 조각, 피라미트, 동양의 정자, 노천공간, 독수리 휘장, 비행기 날개, 선박 난간, 체스판, 적백적의 오스트리아 국기, 룬스로이스 본넷을 절충의 요소로 삼고 있다.

또한 제임스 스티어링의 슈트르트가르트 미술관<그림 9>에서는 쾰른의 알테스 뮤지엄 중앙의 원통모양의 조각공원, 신교전주의의 정형, 입체주의, 르 꼬르뷔제, 알바 알도, 피라네시의 모델 - 축선이 교차하는 원통형의 형태와 오디오리엄의 관계, 기존의 스티어링의 수법 - 정면 파사드의 곡선, 지멘스사 계획의 피스톤 형의 변형, 구성주의의 앓셀블라슈(Assemblage) 출입구의 캐노피 등을 절충의 요소로 삼고 있다.



<그림 8> Hans Hollein, Austrian Travel Agency, Vienna, 1978



<그림 9> James Stirling, Staatsgalerie, Stuttgart, 1983

(2) 꼴라주

현대건축의 특징 중 mannerism적 경향을 지배하는 수법으로 꼴라주를 들 수 있다.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각 부분을 차지하여 하나의 통합된 표현을 이루게 한다. 병치의 수법에서

보이는 독립된 단편의 집적적 표현과는 달리 요소 상호간의 결합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보이는 수법이다. 기존의 형태는 새로운 구성에 적응하는 의미를 가지며 독립된 표현특성이 상실되고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유희적 표현수법이다. 이는 이중기호(double code)를 표현하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대표적 수법이다.

5. 결론

절충은 역사적인 모든 건축양식을 등거리에 두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담없는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이야기거리를 만드는데, 이는 현대건축의 한 부류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형태에 가장 적합한 원리로 이해된다. 기존의 맥락에서 이탈하고, 비논리적인 형태를 취할 경우, 아이러니와 풍자와 유희 등의 이차적인 형태표현의 효과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절충에 의한 형태의 구성에 있어서 애드·혹적인 경향은, 형태창출의 과정상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 최종형태는 그러한 행위의 비의도적인 결과물에 불과하여, 즉흥적인 건축형태가 창출되는 경우로 나타나고, 매너리즘적인 경향은 기존의 건축구성방법과 엘리먼트의 형태를 답습하는 행위에 따른 경우로 나타난다.

공간, 구조, 형태에 따른 절충적 표현은 결론적으로 형태를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인용의 관점에서 볼 때, 건축적 공간은 직접적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도면화된 평면에 의해 계획상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는 전체 매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이 된다. 근대적인 구조의 발달이 있기 전까지는 주로 건축의 구조에 의해 특징적인 형태가 결정되는데, 현대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구조적 형태를 현대적 구조와 재료의 사용에 의해 재현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구조적 인용 역시 형태를 위한 인용의 행위로 파악된다.

절충에 의한 건축형태의 표현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지 않고도 가능한 논리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건축적 양식을 간접적 체험에 의해 설계자의 건축적 어휘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된 건축 형태는 작가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며, 독창적인 형태구성원리를 창조하여 보편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을 수 있을 때, 그 정당한 가치와 형태방법론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다양한 형태적 표현의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그 이론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건축양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론이 현대건축의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건축형태 구성의 정통성 또한 부여할 수 있리라 사료된다. 건축의 형태 표현에 있어서 절충적 경향은 과거의 건축을 재고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할 뿐 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구성 방법론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다양한 형태구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Banham, Reyner, Age of the masters, 大師들의 時代, 강혁譯, 재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7
2. Betsky, Aaron, Violated Perfection, 위반된 완전성, 정태용譯, 초판, 영문출판사, 서울, 1992
3. Blake, Peter, Why Modern Architecture Hasn't Worked 近代建築은 왜 失敗하였는가?, 윤일주譯, 초판, 기문당, 서울, 1989
4. Bogner, Botond, The New Japanese Architecture, 最新日本建築, 장성수譯, 초판, 영문출판사, 서울, 1991
5. Collins, Peter, Changing Ideas in Modern Architecture 1750 1950, 近代建築의 理念과 變化, 이정수譯, 초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2
6. Curtis, William J. 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1900년 以後의 近代建築, 강병근譯, 초판, 화영사, 서울, 1993
7.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現代建築論, 정영철, 윤재희譯, 초판, 세진사, 서울, 1997
8. Frye, Northrop, 象徴, 詩의 象徴, 김용직譯, 초판,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0
9. Hutcheon, L. A Theory of Parady, 패러디 理論, 김상구譯,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3
10. Jencks, Charles, Architecture Today, 現代建築의 動向, 최두길譯, 초판, 태림문화사, 서울, 1987
11. Jencks, Charles, The Language of Post Modern Architecture, 現代 포스트모던 建築의 言語, 초판, 태림문화사, 서울, 1987
12. Klotz, Heinrich, Moderne und Postmoderne, 現代建築論, 양동양譯,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13. Lampugnani, Vittorio Magnano,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in the 20century 現代建築論, 윤재희, 지연순譯, 재판, 세진사, 서울, 1988
14. Lippard, Lucy R. Pop Art, 팝 아트, 전경희譯, 재판, 미진사, 서울, 1993
15. Norberg Schulz, Christian,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西洋建築의 本質的 意味, 정영수, 윤재희譯, 초판, 세진사, 서울, 1984
16. Portoghesi, Paolo, After Modern Architecture, 모더니즘 이후의 現代建築의 動向, 최두길, 선진譯, 재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1
17. Read, H. The Meaning of Art, 藝術의 意味, 박용숙譯,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1991
18. Rowe, Colin, James Stirling, 제임스 스티링 作品集, 김기철譯, 초판, 기문당, 서울, 1990
19. Tatariewicz, W. An Essay in Aesthetics, A History of Six Ideas, 美學의 基本概念史, 손효주譯, 초판, 미진사, 서울, 1992
20. Venturi, Robert, Learning from Las Vegas, 라스베가스의 校訓, 김정신譯, 초판, 태림문화사, 서울, 1986
21. Zabalbeascoa, Anaxu, The New Spain Architecture 最新스페인 건축, 정성문譯, 초판, 영문출판사, 서울, 1993

<접수 : 1998. 11.3>